

막 내린 제6회 제주국제실내악페스티벌

# 제주의 '겨울음악축제' 존재감 드러내다

올해 문예진흥원과 손잡아 8일간 메인·하우스콘서트 정상급 클래식 연주자들의 섬세·견고한 앙상블 연주 축제 지속가능성 확보 과제



'제주국제실내악페스티벌(JICMP)'은 제주대 음악학부 심희정 교수를 주축으로 도내 음악인들이 지난 2018년부터 이어온 실내악 전문 음악축제다. 제주국제실내악페스티벌조직위원회의 열정으로 이어져 온 축제는 올해 6회 행사를 치르며 제주의 '겨울음악축제'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사진 출연진은 더욱 풍성해졌다. 국내외 정상급 클래식 음악가들과 제주를 대표하는 연주자들, 그리고 제주 청년 예술인을 비롯 유망한 음악 영재들까지 80여 명의 클래식 음악인들이 서로 교감하며 들려준 섬세하고 정교한 연주는 실내악의 매력을 한껏 뽐내며 청중들을 사로잡았다.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슈만, 드보르자크, 드뷔시 등 여러 작곡가의 작품들이 듀오부터 8중주로 펼쳐졌다. 귀에 익은 익숙한 곡이 아닌

에도 콘서트 가이드의 청중의 눈높이에 맞춘 해설이 더해져 친밀감을 느끼게 했다. 다만 아이와 함께 공연장을 찾은 한 관객은 "팝플라토에도 설명이 적혀있다면 눈으로 찬찬히 읽으며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대규모 오케스트라의 화려함은 아니지만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피아노, 플루트, 클라리넷 등 다양한 악기들이 조화를 이룬 섬세한 화음은 깊은 울림을 전했다. 김태관 제주문예진흥원장은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수준의 공연, 뒤지지 않는 라인업"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만큼

관객들의 반응과 호응도 높아졌다고 했다. 올해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원과 손잡은 제주국제실내악페스티벌은 규모에 오르는 모양새다. '유럽에서 제주까지'란 주제를 내걸고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토요일을 제외한 8일간의 축제 기간 제주 문예회관 대극장 무대에선 5번의 메인 콘서트, 소극장에선 3번의 하우스콘서트가 펼쳐졌다. 제주문예진흥원에 따르면 유료로 진행된 대극장 공연 매회 관객 수는 총 1336명(초대자수를 더하면 1620명)이다. 공연 비수기로 꼽히는 2월의 무대를 전문적인 실내악 공연

으로 채우며 "선전했다"는 일각의 평도 있지만 향후 도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나아가기 위해선 관객 확보는 과제다. 다만 향후 축제가 안착할 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고정적인 예산·인력 지원이 뒷받침돼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겨울음악축제로 자리매김을 꾀하는 제주국제실내악페스티벌, 심희정 조직위원장은 "제주의 겨울에 열리는, 누구나 공감하고 알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 와중에 도민들과도 같이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로지까지

## '갤러리 둘 하나' 주민결으로 한 걸음 더

주민 참여 전시 확대 24일까지 신청 접수

제주시 이도1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갤러리 둘하나' 전시관이 주민 결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선다. '갤러리 둘하나'는 수방자재 창고로 이용되다가 15년부터 영세한 도내 미술 작가의 전시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아마추어 작가의 작품 전시 용도로 제한적으로 운영돼왔는데, 지역 주민까지 참여를 확대해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품채널 >업사이클링전시 >4계절 알리미 창작 시 등을 추가 운영할 계획

이다. 더불어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하는 미술 경진 작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도1동은 이달 24일까지 갤러리 둘하나의 올해 예술인 및 지역 주민의 전시 신청을 받는다. 응모 자격요건부터 주제, 장르에 제한이 없으며 신청서는 방문, 우편,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이도1동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양경원 이도1동장은 "삼성혈 문화의 거리 활성화와 시민들에게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능있는 도내 예술인들과 지역 주민의 신청을 적극 바란다"고 전했다. 오로지까지



정승연 이경진 김성진 이승희

## 창작오페라 '순이삼촌' 새 주역 4명 선발

오는 4월 7-8일 제주 아트센터 무대에 오르는 창작오페라 '순이삼촌'을 이끌 새 주역이 정해졌다. 제주아트센터는 오디션 통해 순이삼촌 역에 소프라노 정승연·이경진, 삼촌 역에 테너 김성진, 큰아버지 역에 베이스 이승희가 최종 선발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오디션엔 순이삼촌 28명, 삼촌 19명, 큰아버지 역에 8명이 접수했다. 1차 서류 및 영상심사를 통해 선발된 순이삼촌 5명, 삼촌 4명, 큰아버지 3명에 대한 2차 대면 오디션은 지난 11일 제주아트센터에서 진행했다. 오로지까지 eioh@ihalla.com

## 코로나19 전단 예술축제의 '새로운 길'

이달 21~24일 2023 제주국제합창축제&심포지엄 아트센터·서귀포예당 등서... 7개국 참여 풍성

2023 제주국제합창축제&심포지엄이 마스크 없이, 3년 만에 온전한 대면축제로 치러진다. 지난 2년간 영상으로만 만났던 해외합창단들을 직접 마주하며, 총 7개국에서 모이는 약 1000명의 다양한 합창단과 지휘자들이 참여하는 더욱 풍성한 합창축제로 꾸러질 예정이다.

제주국제합창축제엔 심포지엄 조직위원회(예술총감독 김희철)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제주를 비롯 국내·외 전문합창단 및 아마추어 합창단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달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제주아트센터 및 서귀포예당의전

당, 제주오리엔탈호텔 등에서 펼쳐진다.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합창단 외에 우즈베키스탄 국가공훈 성악가들로 구성된 앙상블팀, 카자흐스탄의 카자흐 합창단의 무대를 만나볼 수 있다. 7회째를 맞는 올해 축제의 주제는 '새로운 길(NOVA VIA)'이다. 조직위는 "팬데믹 속에서도 음악, 예술축제의 '새로운 길(NOVA VIA)'을 펼쳐 가기를 원하는 모두

의 간절한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합창축제와 함께 열리는 제주국제합창심포지엄에는 세계적인 지휘자 등과 함께하는 합창 강의와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 및 워크숍이 예정돼 있다. 조직위는 "깊이 있는 주제의 강연과 새로운 합창곡들을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낮에는 심포지엄을, 저녁에는 정상급 합창단들의 공연을 체험할 수 있으며, 다시 한번 함께 모여 희망을 노래하는 합창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 오로지까지 eioh@ihalla.com

## 국립발레단과 함께하는 '꿈나무 교실'

24일까지 선착순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이 국립발레단과 협업해 3월부터 8개월간 제주문예회관에서 발레 교육 프로그램 '국립발레단 꿈나무 교실'을 추진한다. 무용, 발레 예술 저변확대를 위한 발레 교육 체험 프로그램으로, 제주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수강생은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등 문화소외계층 초등학교 3-5학년이 대상이다. 수강료는 무료며, 수업에 필요한 발레복, 슈즈 등 관련 물품도 무료로 제공된다. 참가 원서 접수는 이달 20일부터 24일 오후 5시까지(선착순 20명)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로지까지



**제주홍익여행사**  
**746-2200**  
www.jeuhongik.co.kr

★일반여행업등록 제1016호★ 2009 문화관광부 제주마이스터 & 인센티브제주여행 상품 인증 / '고객감동 해외여행서비스'

# 날개 달린 품격여행

예약품질  
마감임박!

**BEST** 봄맞이 꽃구경 패키지

01 산수유/매화 봄꽃 여행  
3/17 2박3일 581,000원

02 하동 벚꽃 여행  
3/31 2박3일 574,000원

03 돌림축제/퍼즐섬  
4/14 2박3일 523,000원

01 베트남 다낭 3박5일  
4/28 출발  
1,290,000 원  
(5성급 관광패키지)

02 오사카 3박4일  
매일 출발  
780,000원~

03 타이페이/야류/저우펀+101빌딩 4일  
3/7, 3/15, 3/21 3/11, 3/18  
평일/출발 토/출발  
829,000원 869,000원

04 제주 출발 싱가포르 여행  
싱가폴/바탐 5일  
(3/7, 3/8, 3/15)  
1,390,000원

05 라오스 3박5일  
4/12  
1,290,000 (관광)

06 태국 치앙마이 3박5일  
3/23 출발  
1,290,000원  
골프 1,750,000원

IATA 공/통/사/행 왕복항공료, 1급호텔(2인1실), 일정상의 식사제공, 관광지입장료, 전용차량료, 인솔자 부분별 동행, 1억원여행자보험,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기금, 공항세, 최소 15명이상 출발 모집마감-선착순 ★불포함 : 가이드 & 기사 팀/개인비용